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 부활과 가계부채

-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 부활에도 불구하고 4월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총부채상환비율(DTI)에 따라 제한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 2009년 9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규제가 완화됨.
 -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011년 4월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던 규제를 부활함.
 - 규제가 부활됐음에도 불구하고 4월 28일 기준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0.9% 증가한 189조 6,583억원으로 나타남.
 - 은행당 평균 3,745억원이 증가했으며, 이는 규제가 완화됐던 기간의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액인 3,029억원보다 약 24% 높은 금액임.
-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확대와 계절적 요인이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지속시킨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.
 - 부동산 거래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은 주택 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신규 분양 입주자들의 집단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 - 또한 총부채상환비율(DTI) 규제와 관계없이 이사철과 은행들의 영업 시즌 도래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.
- 정부는 규제 부활을 통한 가계부채 감소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 - 2010년 말 가계부채는 937조 3,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.9%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채무상환 능력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에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.

(DTI 부활에도 주택대출은 늘어 등, 한국경제 등, 5/1)